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21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69.60원 (-13.90원)

KOSPI

6,219.09 (+27.17, +0.44%)

KOSDAQ

1,174.85 (+4.81, +0.41%)

국고채 10년 금리

3.688 (-0.029%p)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반복되는 위기와 기회의 활용법 [박승진]
New K-ETF	채권혼합50: 삼전닉스, KOSPI200액티브 [박승진]
DIN (Doo It Now)	6천피 생존 전략: ①재평가의 서막 [김두언]
주간 하나채권	[4월 4주] 금리와 주가의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 [박준우, 허성우]
신흥국 전략	인도 식품 물가를 위협하는 중동과 기후 [김근아]

기업분석

LIG 아큐버	5G SA 시대 돌입, 늦게 오른 만큼 많이 오를 것 [김홍식]
ICTK	이제는 양자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김홍식]
HMM	1Q26 Pre: 전쟁보단 벌크, 벌크보단 현금 [안도현]
알지노믹스	간암 효능 서프라이즈, 개발 속도 및 파트너쉽 당길 것 [김선아]

Weekly

건설	이번주 미국 이란간 합의가 변수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HANA US Weekly	TSMC와 ASML 실적 시사점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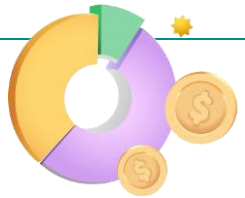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국금융지주, HD건설기계, 삼아알미늄, 리가켐바이오, 덕산테코피아, LIG아큐버, 와이엠티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4.20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반복되는 위기와 기회의 활용법

실적 시즌 본격화. 매크로 관점의 변동성 가운데 실적 중심의 대응: SMH/DRAM, PAVE, QUAL, QGRO와 DIVO/QD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주식시장 중심의 투자 자금 유입 영향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과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203.2억달러, +114.1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유럽(-18.7억달러)과 아시아(-34.1억달러) 지역의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의 주간 자금 유입 총액은 +264.5억달러로 집계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신흥국 ETF 시장으로 +23.2억달러가 유입되면서 80억달러 대의 매수세 유입 흐름이 유지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종전 기대가 높아지던 상황을 반영하며 수급이 접근 영역을 확산해 나가는 모습이 주식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주식형 ETF 종목군에서는 NASDAQ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52.8억달러,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VOO/SPYM으로 총 41.2억달러가 유입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재 중소형주 ETF인 AIRR, 브라질 증시 ETF인 EWZ, 미국 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VTI와 반도체 섹터 ETF인 SOXX, 미국 제외 글로벌 증시 ETF인 VXUS 등의 종목이 자금 유입 상위 ETF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투자등급 회사채 ETF인 LQD와 초단기 채권(듀레이션 0.4 이하) ETF인 PULS, 하이일드 회사채 ETF인 HYG, 전환사채 ETF인 CWB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최근 매수세 유입이 집중되었던 3개월 이하 초단기 국채 ETF들인 BIL과 SGOV에서는 총 -43.1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되었다. 원자재 ETF 종목군에서는 GLD와 GLDM과 같은 금 현물 ETF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원유 선물 ETF인 USO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었다. 더불어 대표 비트코인 현물 ETF 종목인 IBIT에는 투자자금 순유입, 달러 ETF인 UUP에서는 투자자금 순유출 흐름이 나타났다.

- **ETF 포트폴리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의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업실적이 시장의 돌파구로 인식되는 시기이다. 방산 대표 기업들인 GE Aerospace와 RTX, Northrop Grumman이 21일(화) 장 전에, GE Vernova와 Vertiv가 22일(수) 장 전에 실적을 내놓는다. 이어 Tesla와 Servicenow가 22일(수) 장 마감 후, Intel이 23일(목)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다. AI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방산, 전력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Servicenow와 SAP 등의 기업들을 통해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가 형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변동성 재개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최근 사모대출 이슈와 더불어, 금리 및 유동성 환경에도 밀접한 주가 연동성을 보이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인지되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경제지표의 경우 3월 소매판매 데이터가 화요일(4/21)에, 4월 S&P 글로벌 PMI 보고서가 목요일(4/23)에 확인된다. 이어 금요일(4/24)에는 역대급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의 확정치가 발표된다. 3월 소매판매 데이터가 2월(전월대비 +0.6%)보다 개선(전월대비 +1.4%)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휴전과 확전 사이에서 발표되는 주요 4월 서베이(PMI/소비심리) 지표들의 반등 기대가 형성될 전망이다. 통화정책 회의와 연준의 스탠스를 고려할 경우,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와 함께 확인되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항목의 안정화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 한편 다음주 FOMC(4/28~29)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드디어 오는 화요일(4/21)에 Kevin Warsh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명자의 의견과, 대차대조표를 비롯한 전반적인 통화정책 관련 내용들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문회는 지금까지 알려진 Kevin Warsh의 성향과 기존 발언 내용들, 시장 해석의 조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청문회가 끝난 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자 은행위원회 멤버로써, Kevin Warsh의 인준(표결)을 가로막고 있는 Thom Tillis 의원의 스탠스 변화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달도 남지 않은 파월의장의 의장직 임기 만료일(5/15)을 앞두고, 향후 정치 변수에 의한 시장금리 발(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ETF 포트폴리오는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SMH/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SpaceX 상장 기대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X/NASA(우주항공), 지정학적 리스크와 각국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 KDEF(한국방산)/EUAD(유럽방산),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유도 및 대체 관세와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MADE(제조업), 지속되는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QUAL/SPHQ(퀄리티)와 QGRO(퀄리티성장) 등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 USO(원유선물), DBA(농산물 선물), UCO(원유 2배)/SCO(원유 -2배) 등의 ETF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 변화 흐름에 따라 변동성 대응 및 헷지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종목들이 되겠다.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점 통과 및 변동성 감소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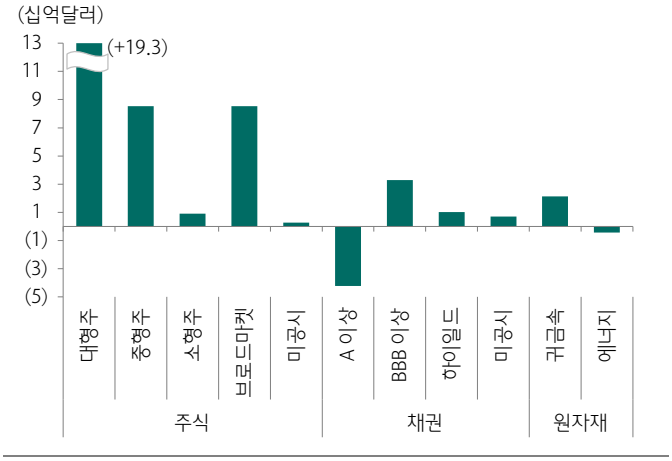
Global ETF Weekly Chart

미국 상장 ETF 기준 자산별 주간 자금 순유출입 금액

자산군	구분	순유출입($MM)
주식	대형주	32,393
	중형주	8,524
	소형주	904
	브로드마켓	8,524
	미공시	268
채권	A 이상	(4,226)
	BBB 이상	3,293
	하이일드	1,023
	미공시	688
원자재	귀금속	2,121
	에너지	(44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미국 상장 ETF 기준 자산별 주간 자금 순유출입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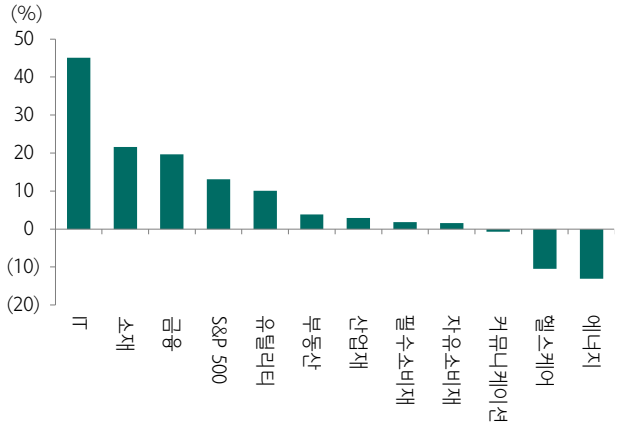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일정

발표일	기업명	EPS 전망치	매출 전망치
04월 21일	GE Aerospace	1.60	10.71B
04월 21일	RTX	1.51	21.44B
04월 21일	Northrop Grumman	6.05	9.76B
04월 21일	Intuitive Surgical	2.12	2.62B
04월 22일	Tesla	0.36	22.28B
04월 22일	Lam Research	1.35	5.73B
04월 22일	Vertiv	1.00	2.63B
04월 22일	ServiceNow	0.97	3.75B
04월 23일	Intel	0.02	12.41B
04월 23일	Lockheed Martin	6.74	18.26B

자료: Investing.com, 하나증권

S&P500 업종별 1분기 EPS 증가율 전망 변화: 견고한 IT, 상향된 금융



자료: Factset, 하나증권

2026년 4월 20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채권혼합50: 삼전닉스, KOSPI200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4/21)

-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50, 1Q 200 채권혼합50 액티브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50: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들과 단기 국고통안채를 함께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5%의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50% 비중은 단기 국고채와 통안채로 구성한다.

한국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도주 2개 종목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안전자산인 우리나라 국고채 포트폴리오를 각각 50%의 비중으로 조합하는 형태이다. 국고채 포지션의 경우 잔존만기가 3개월~12개월 이하인 국고채와 통안채 가운데 발행잔액 기준 상위 10개 종목들을 편입한다. 채권 포트폴리오의 각 채권 종목들은 동일가중 방식 기준을 반영하여 5%의 개별 비중을 부여한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채권 포지션이 5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며,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퇴직연금 계좌에 100% 비중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ETF 종목이 되겠다.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비중(25%/25%/50% 기준)은 매일 조정하며, 채권 포트폴리오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총 보수는 0.07%가 적용된다.

1Q 200 채권혼합50 액티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KOSPI200 지수와 단기 국공채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액티브 ETF이다. 주식 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에 각각 50%의 비중을 할당한다.

주식 포지션의 경우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우량기업 포트폴리오의 KOSPI200 지수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비중 조절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접근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겠다. 안전자산인 채권 포지션은 잔존만기가 6개월 이하인 국공채로 구성한다. 만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인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특수채 등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포지션이 5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100% 비중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ETF 종목이다. 비교지수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50% 비중의 조정 작업은 매일 진행된다. 0.4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50, 1Q 200 채권혼합50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1Q 200채권혼합50액티브
상장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FnGuide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채권혼합 지수	코스피 20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07%	0.40%
구성종목 수	12종목 (주식 2종목, 채권 10종목)	15종목
비중결정방식	▫ [주식]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 [채권] 편입종목 동일가중 방식	코스피 200 지수 50%, KIS 단기국공채 지수 50% · [코스피 200]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 [KIS 단기국공채] 시가총액 가중방식
정기변경	▫ 일별 리밸런싱 ▫ 채권 : 월1회, 매월 마지막 영업일	·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선물시장 6월, 12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 [KIS 단기국공채] 매일 조정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4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6천피 생존 전략: ①재평가의 서막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RA 김민근 minkeunkim@ hanafn.com

(결론적으로) 이란 전쟁 이후 **재평가의 축을 잡는 것**이 투자 전략의 핵심이다. 주목할 포트폴리오는 3개다. **첫째, 안보와 동맹 재편의 수혜**를 받는 방산·조선·전력기기, **둘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를 받는** 원전·LNG·대체에너지, 그리고 **셋째, 비용 압력을 생산성으로 돌파할 AI 인프라·반도체·자동화**다. 이번 중동사태는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는다. 전쟁 이후의 시장은 '누가 더 안전한가'보다 '누가 더 빨리 **만들고, 보내고, 복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제조업의 시대고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란發 중동 사태 관련해서 주말 사이 또 다시 이슈들이 불거졌다. 시장은 이제 "회담이 열리느냐"보다 **"에너지 동맥이 안정적으로 다시 작동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진전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음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핵심 쟁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고농축우라늄 처리, 농축 중단 기간, 제재 해제의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질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최근 가격 반응도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란이 일시적으로 상업 선박 통행을 허용하자 브렌트유는 하루 9% 급락해 배럴당 90.38달러, WTI는 11.45% 하락한 83.85달러로 밀렸지만, 통제 강화와 재봉쇄 우려가 다시 부각되자 유가는 재차 흔들렸다. 전쟁 전 하루 130척이 넘던 호르무즈 통항은 여전히 정상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고, 전쟁위험 보험료는 일부 구간에서 10배 이상 급등했다. 결국 헤드라인이 아니라 **통항 지속성, 보험 정상화, 물동량 회복**이 진짜 변수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듯 하지만, 파국보다는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조율 중이고, 시장의 시선은 이제 다음 변수로 옮겨가고 있다(4/13, 협상은 흔들려도, 시장은 실적을 본다). 따라서 이란 전쟁 그 이후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이란 전쟁은 다양한 부문들의 재평가를 불러올 전망이다. 첫째, **동맹의 재평가**다. 이번 전쟁은 과거처럼 이념, 조약, 주둔군 숫자만으로 안보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는 2025년 기준 하루 약 20mb/d의 석유와 글로벌 LNG 교역의 약 19~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체 파이프라인 여력은 3.5~5.5mb/d 수준에 그친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더 빨리 **만들고, 보내고, 고치고, 복구할 수 있는가**가 동맹의 실질 가치가 된다.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GDP의 27%, 일본은 21%, 독일은 18%이다. 공급·정비·복구 능력이 외교의 부속물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가 되는 국면이다.

둘째, **중동의 재평가**다. 중동은 더 이상 "무한한 에너지 공급 창고"로만 보기 어렵다. 이번

충돌은 원유 자체보다도 운송, 보험, 항만, 전력, 담수화, 정유·석화 설비가 함께 가격표를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아시아는 이미 중동산 LPG 차질을 메우기 위해 미국·노르웨이·캐나다 물량으로 조달선을 넓히고 있고, 중국은 전쟁 와중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에너지 시스템과 원전 확대를 더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중동은 공급지이면서 동시에 상시적 안보 비용을 청구하는 지역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셋째, **인플레이션의 재구성**이다. 3월 미국 CPI는 전년동월대비 3.3%로 다시 뛰었고, 에너지는 12.5%, 휘발유는 18.9% 상승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도 이번 전쟁이 이미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금리 경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1970년대식 공급충격의 기억을 다시 소환한다. 다만 이번 국면을 1970년대의 단순 복제판으로 보기도 어렵다. 미국의 생산성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고, 노동생산성은 2025년 2.1%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AI 도입이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 요인으로 거론된다. 즉,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충격의 상방 압력**과 **AI 생산성의 하방 압력**이 맞서는 구도다.

넷째, **재건의 재평가**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이미 하나의 장기 투자 주제가 됐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10년 재건·회복 수요를 거의 5,880억달러로 추정한다. 동시에 중동도 재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중동 에너지 인프라 복구 비용은 최대 580억달러까지 커질 수 있고, 이란의 손상이 가장 크다. 이란은 정유·유통 설비를 1~2개월 안에 70~80%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석유화학 수출은 이미 중단됐고 경제 전반의 타격도 깊다. 중요한 점은 이란이 전형적 단순 산유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란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GDP의 20.6%였고, 수입 구조에서도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전후 이란은 단순한 "원유 회복"이 아니라 **정유·석화·전력망·항만·산업설비 전체의 복구 수요**로 읽는 편이 맞다.

다섯째, **달러 패권의 재평가**다. 역사적 출발점은 1945년 USS *Quincy* 에서의 루스벨트-압둘아지즈 회동이다. 다만 이번 전쟁이 곧바로 달러 패권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달러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 준비통화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변화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9.5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정학은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했고, 응답 기관의 거의 70%가 이를 최우선 위험으로 꼽았다. 금 보유 확대 의향도 높아졌다. 달러는 여전히 중심이지만, 그 주변부에서 금과 일부 원자재 통화, 그리고 비달러 결제·준비자산 다변화가 더 자주 논의되는 구도다. 다시 말해 질문은 "달러가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비싸지는가**"에 가깝다.

따라서 이란 전쟁 이후의 투자전략은 단순한 유가 베팅이 아니라 **재평가의 축을 잡는 문제**다. 포트폴리오를 세 갈래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방산·조선·전력기기·전선·원전·엔지니어링처럼 "만들고 보내고 복구하는" 제조·인프라 축이다. 둘째는 LNG, 가스 인프라, 대체 에너지, 저장·운송처럼 에너지 안보 재편의 수혜 축이다. 셋째는 AI 인프라와 생산성 개선 수혜주다.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보다, **더 비싼 안보와 더 높은 복구 수요, 그리고 더 전략적인 제조업**의 시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4월 20일 | Global Macro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4월 4주] 금리와 주가의 회복 속도가 다른 이유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미국		■			

주: 4월 20일 기준. ●는 직전 전망

- 주가는 이란 사태 이전을 상회한 반면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 양호한 성장 전망 때문
-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성장의 중요도가 높아짐. 미국 10년 4.1%~4.5%
- 한국은 선제적 인상 리스크 완화된 점에 주목. 3년 3.5%가 강력한 저항선

Weekly Viewpoint

한국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에서의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WTI와 Brent 유가 모두 $80대로 약 10% 하락했다. 주말 사이에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번복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종전이 아니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안도감 속에 유가 상승의 영향을 look-through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 하락 및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 (한국 금리는 금요일 이란 이벤트 반영 못해 소폭 상승).

3월 이후 금융시장은 유가 등락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 10년 금리는 이란 사태 이후 상승 폭의 절반도 되돌리지 못한 반면 주가와 크레딧 스프레드는 2월말 수준을 이미 다 회복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지난 50일 동안 중동 이벤트에 가려졌지만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신호들까지 함께 작용**한 결과다.

유가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소비자 심리 지표들은 부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주간 고용 지표들도 회복 추세다 ('4월 3주' 참고). 지난주 발표된 ADP의 주간 고용은 3.9만명으로 월간으로 환산하면 15만명을 넘는다 (3/28 기준 4주 평균) [도표 15]. 3월 비농업고용 (3월 2주차 조사)이 17만명으로 호조를 보인 후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breakeven 고용이 10만명보다 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침체와 거리가 멀다. 댈러스 연은이 일간/주간 하드 데이터로 추정한 연간 미국 성장률은 2.8%로 상향 조정됐다 [도표 4]. 지난주 베이지북과 지역 연은 서베이 등 소프트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기보다 관망 기조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슈 1-2]. 2025년 관세 리스크와 비교하면 불확실성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1990년 사례와 비교를 업데이트해보면, 유가와 금리는 대체로 비슷한 속도와 폭으로 상승 후 꺾이고 있다 [도표 1, 2]. 이번주도 금리의 방향성은 유가에 달려있다. 다만 유가의 정점을 지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지면, 성장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양호한 경제지표와 주가의 가파른 회복 등에 비추어보면,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 가속화보다 양호한 성장 전망으로 금리가 반등할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10년 금리는 작년 4분기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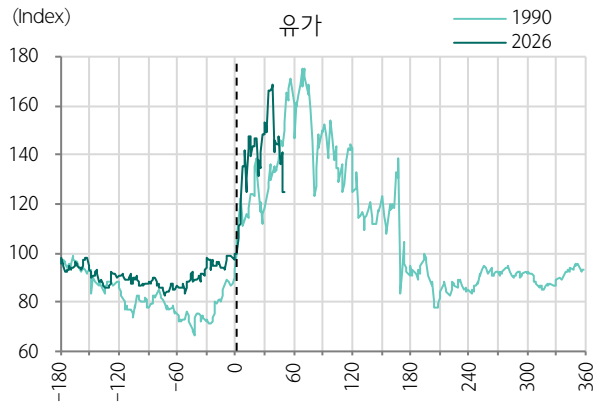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경제 둔화 리스크를 반영하여 3.9%~4.3% 수준에서 등락했다. 지금은 당시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아지고 침체 리스크는 오히려 낮아졌다. 10년 금리(현재 4.26%)의 주요 등락 레인지를 4.1%~4.5%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1.9%을 기록하며 잠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물가 급등 (3월 +18.4% YoY)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므로 인상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선제적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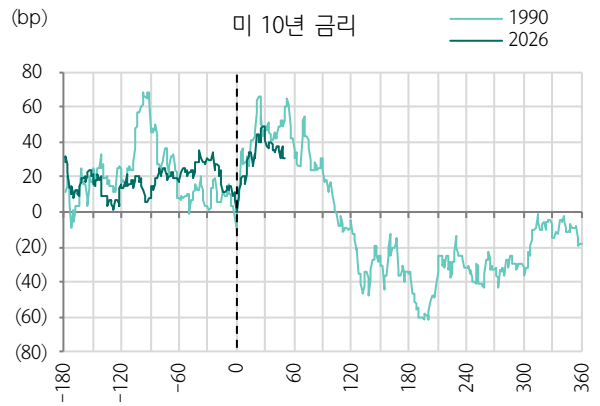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동결 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성장보다는 물가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 유가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통화정책 대응은 불필요하므로 4월 동결은 적절했으며, (2) 여전히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가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선제적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되고, 이 경우 3년 금리는 3.5%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표 1. [1990년과 2026년] 유가
: 유가 등락 속도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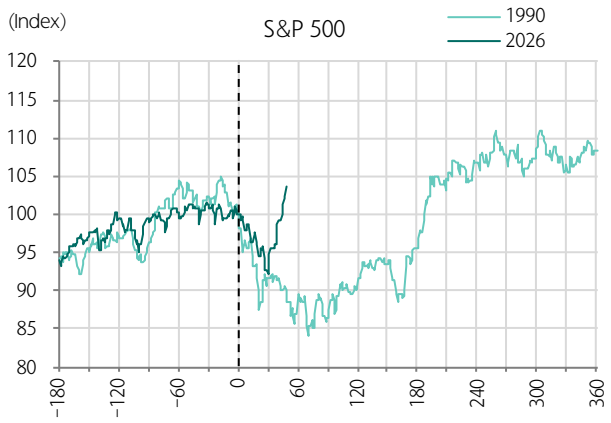
주: x축은 D-day,1990년 8월 2일, 2026년 2월 28일이 기준. 이하 동일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1990년과 2026년] 미국 10년 금리
: 금리 등락도 유사. 1990년과 같이 금리 급락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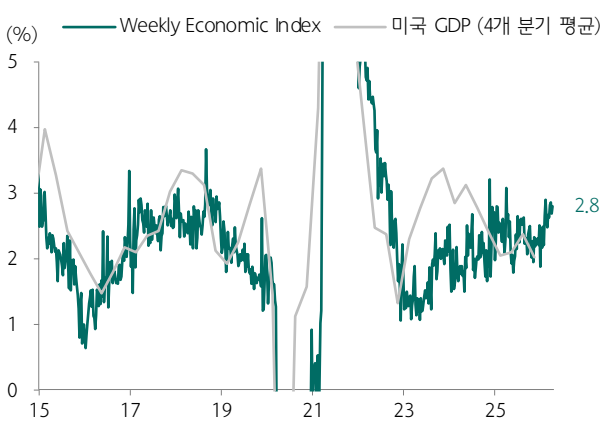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1990년과 2026년] S&P 500
: 주가는 이란 사태 이전을 상회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주간경제지수와 GDP 성장률
: 주간 고용, 소매판매 데이터 호조 등에 상향 조정 추세



자료: LSEG, 하나증권

2026년 4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식품 물가를 위협하는 중동과 기후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호르무즈 해협 장기화에 따른 비료 공급 차질 우려와 기후 변화

인도 3월 헤드라인 CPI는 YoY +3.4%로 2월의 +3.2%에서 소폭 상승했다. 식품, 에너지, 금·은 가격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지만, 미국-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소매물가 충격은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3월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며 국제유가 상승분의 소비자 가격 전이를 일부 지연시킨 데다, CPI 바스켓 개편 과정에서 식품 비중이 45.86%에서 36.75%로 낮아지며 헤드라인 지표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완화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3월 도매물가지수(WPI)는 YoY +3.88%로 전월의 +2.13%에서 큰 폭 상승해, 상방 압력이 생산자 단계에서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직 소비자물가로의 전이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차를 두고 도매가격 상승분이 소매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편, 인도는 식품 물가가 민간소비와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인데, 현재는 대내외 요인이 겹치며 식품 가격 상승 우려가 특히 커지고 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차질 우려까지 확대되면서, 카리프(여름 작물) 시즌을 앞둔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료 보조금 인상과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소매가격 안정 및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확산되며 비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급증하는 등 패닉바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농가의 투입비용 부담은 이미 상당 부분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2주간의 휴전 합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이란 상선을 공격하면서 해협 개방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시 높아졌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비료 공급 차질이 추가로 심화되며 농가의 비용 부담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향후 작황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기후 조건이다. 인도 기상청(IMD)은 2026년 남서 몬순에 대한 1차 장기예보에서 6~9월 누적 강수량이 장기평균강수량(LPA)의 9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태평양 엘니뇨-남방진동(ENSO) 상태는 중립이지만, 여름과 하반기로 갈수록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예년보다 강수 여건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리프 작물은 몬순 시즌 강수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강수 부진이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 생산 차질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1)양(+)의 인도양 쌍극자(IOD)는 인도 강수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양(+)의 IOD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북반구 적설 면적은 통상 인도 몬순 시즌 강수량과 역의 관계를 보이는데 최근 3개월(1~3월) 동안 북반구 적설 면적이 평년을 소폭 하회했다는 점, 3)저수지 총 저수량이 전년 대비 +21% 많다는 점 등의 완충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기상 여건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현재 인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과 기상 여건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식품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 둔화와 이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훼손하고 농촌 소득 개선을 제약해, 결국 내수 회복세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6년 04월 2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IG아큐버 (073490)

5G SA 시대 돌입, 늦게 오른 만큼 많이 오를 것

BUY (유지)

목표주가(12M)	80,000원(상향)
현재주가(4.20)	48,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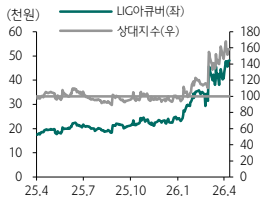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74.85
52주 최고/최저(원)	48,100/17,720
시가총액(십억원)	365.7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7,603.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74.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9
외국인지분율(%)	3.95
주요주주 지분율(%)	
엘아이지 외 4 인	30.1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1.0	289.0
영업이익(십억원)	19.5	33.9
순이익(십억원)	16.7	28.9
EPS(원)	2,196	3,801
BPS(원)	23,764	27,88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89.7	186.1	233.0	311.7
영업이익	2.4	(1.1)	16.9	35.7
세전이익	5.9	(1.4)	18.6	37.9
순이익	2.5	(1.2)	15.8	32.2
EPS	333	(158)	2,079	4,237
증감율	(76.71)	적전	흑전	103.80
PER	62.16	(141.77)	23.14	11.35
PBR	0.93	1.02	2.01	1.71
EV/EBITDA	12.78	29.96	14.60	7.30
ROE	1.51	(0.71)	9.05	16.27
BPS	22,269	21,991	23,971	28,107
DPS	120	100	100	1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2개월 목표가 80,000원으로 상향, 미국 외 주파수 경매 이벤트에 주목

LIG아큐버(구 이노와이어리스) 12개월 목표주가를 80,000원으로 33% 상향 조정한다. 최근 국내외 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 및 미국 주파수 경매 임박으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다. 2026년 추정 BPS에 Target PBR 3.5배를 적용한 것인데 국내외 통신장비 업종 평균 Multiple을 감안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LIG아큐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는데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올해 미국 시장, 내년 국내 시장에서 신규 주파수 투자와 더불어 5G SA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된다고 가정 시 LIG아큐버가 통신장비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2) 2026년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신규 주파수 투자와 더불어 신규 단말기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 LIG아큐버의 시험장비 매출 급증이 예상되며, 3) 지난해 해킹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어 국내 통신 3사 및 일본/미국 통신사를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스몰셀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4) 캡티브 시장인 LIG그룹을 바탕으로 방산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5) 국내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PBR과 적은 주가 상승을 기록 중이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5G SA 서비스 본격 확장 시 통신장비 대장주로 급부상할 전망

최근 LIG아큐버의 상대적인 주가 상승 폭이 여타 통신장비업체 대비 크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번엔 데이터센터 선발주에 이어 후발주까지 움직이고, 무선 통신장비 업종 주가는 아직은 선발주 중심으로만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탓이 크다. 하지만 곧 LIG 아큐버의 주가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시험장비 매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신규 주파수 할당 및 단말 출시는 LIG아큐버의 실적 호전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해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 특히 상대적 마진율이 높은 편이라 더욱 그랬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매출처도 확대되고 있어 시험장비 매출 회복세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이젠 보기 드문 통신장비 업종 내 낮은 PBR 우량주, 길게 보면 높은 수익률 예상

최근 광통신에 이어 무선 통신으로까지 CAPEX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통신장비 Multiple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사례가 다수 발생 중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엔 PBR이 20배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LIG아큐버의 투자 매력도가 특히 높다는 판단이다. 이미 유선 장비 업체들의 Multiple도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대표 무선 계측 및 펨토셀 장비 업체인 LIG아큐버의 PBR이 2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오르기 전 서둘러 매수할 것을 권한다.

2026년 04월 21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아이씨티케이 (456010)

이제는 양자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40,000원
현재주가(4.20)	26,6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174.85
52주 최고/최저(원)	26,650/11,100
시가총액(십억원)	370.5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3,901.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69.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0.0
외국인지분율(%)	8.19
주요주주 지분율(%)	
이정원 외 16 인	27.5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7	29.6
영업이익(십억원)	5.2	8.7
순이익(십억원)	4.8	7.5
EPS(원)	345	539
BPS(원)	3,503	4,05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7	4.0	23.7	29.6
영업이익	(6.7)	(8.9)	5.2	8.7
세전이익	(5.8)	(6.7)	6.0	9.4
순이익	(5.8)	(6.7)	4.8	7.5
EPS	(467)	(499)	344	542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57.56
PER	(20.99)	(33.13)	77.47	49.17
PBR	3.02	5.23	7.60	6.59
EV/EBITDA	(18.32)	(27.99)	33.00	24.49
ROE	(22.20)	(15.36)	10.31	14.35
BPS	3,240	3,161	3,505	4,047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양자 관련 복합적 성과 도출 중

ICTK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ICTK 파트너사 Q퍼펙트의 양자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양자컴퓨터 R&D 지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점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며, 2) 양자컴퓨터 개발 단가가 저렴해지고 큐빗 성장세가 향상되는 만큼 방어자 입장인 양자암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3)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수록 기술력과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는 ICTK에 사업 기회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4) ICTK는 BTQ 및 Q퍼펙트를 통해 단순 양자암호 업체가 아닌 국내 유일의 풀스택 양자컴퓨터 업체로 포지션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Q퍼펙트 MIMIQ 기술 통해서 양자 시뮬레이션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 발전 속도가 기존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자컴퓨터 개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서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 같다. ICTK 파트너사인 Q퍼펙트가 보유한 양자 에뮬레이션(시뮬레이션) 기술 MIMIQ이 대표적이다. 흔히 사용되는 초전도체 방식으로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려면 약 100개 큐빗당 컨테이너 상자 1개 수준의 공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양자칩과 배선 및 냉각 튜브가 달려있는 "샹들리에"에 별도로 극저온 냉각기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약 실험이나 최적화 계산 같은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양자컴퓨터가 최소한 수천~수만개의 물리큐빗이 필요하다고 보면 양자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자원양을 짐작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온큐,리게티 같은 전문 양자컴퓨터 업체는 통상 매출의 4배~10배 이상을 R&D 비용으로 지출한다. 그런데 양자 에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일반 컴퓨터를 통해 양자 중첩과 얽힘을 수학적으로 재현 가능하다. 가상의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양자컴퓨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미리 구현해보는 원리로써, 양자컴퓨터를 일일이 물리적으로 구현하지 않아도 되니 R&D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양자산업이 더욱 빨리 개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다.

국내 유일 풀스택 양자컴퓨터 업체로 도약하면 더 높은 기업가치가 기대됩니다

결국 양자컴퓨터 단가가 저렴해지는 셈이니 보급률이 늘어나며 시장이 성장하고, 상응하여 큐빗 성장세도 더욱 가팔라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양자암호 산업에 호재이다. 공격자인 양자컴퓨터가 많아지는 만큼 방어자인 양자암호도 보급되어야 하고, 큐빗 성장세에 대응하여 양자암호 적용시점도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말인데, 그럴수록 양자암호 주도주인 ICTK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입증됐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는 ICTK에 사업 기회가 쏠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ICTK는 Q퍼펙트를 통해 단순 양자암호 업체가 아닌 국내 유일의 양자컴퓨터 업체로도 포지션을 확립하며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4월 21일 | 기업분석

HMM (011200)

1Q26 Pre: 전쟁보단 벌크, 벌크보단 현금

Neutral (유지)

목표주가(12M)	21,000원
현재주가(4.20)	2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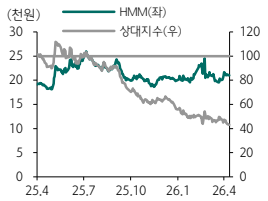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219.09
52주 최고/최저(원)	25,950/18,110
시가총액(십억원)	19,808.0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943,23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339.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9.9
외국인지분율(%)	7.48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35.42
한국해양진흥공사	35.0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196.2	10,102.4
영업이익(십억원)	904.7	853.7
순이익(십억원)	1,208.1	1,147.1
EPS(원)	1,280	1,216
BPS(원)	29,351	30,20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700.2	10,891.4	11,415.3	10,916.1
영업이익	3,512.8	1,461.2	1,060.0	648.7
세전이익	3,896.6	2,000.7	1,407.7	837.9
순이익	3,782.2	1,878.4	1,309.9	744.5
EPS	5,055	1,955	1,389	789
증감율	176.38	(61.33)	(28.95)	(43.20)
PER	3.49	10.49	15.12	26.62
PBR	0.56	0.73	0.74	0.75
EV/EBITDA	0.95	4.38	5.58	7.16
ROE	15.35	6.90	4.91	2.79
BPS	31,615	28,168	28,370	28,151
DPS	600	700	700	7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분기 영업이익 2,570억원(-58% (YoY)) 전망

1분기 HMM의 매출액은 6% (YoY) 감소한 2조 6,750억원, 영업이익은 58% 감소한 2,570억원(영업이익률 9.6%)으로 전망한다. SCFI는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1,800pt 이상으로 급등했으나, 1분기 평균은 1,507pt(-14% (YoY))였다. 따라서 1분기 컨테이너선 사업부 매출액은 12% (YoY) 감소한 2조 1,670억원, 벌크선 부문은 벌크/탱커선 운임 호조와 선대 증가로 34% (YoY) 증가한 4,510억원으로 예상한다. HMM의 매출원가 중 유류비 비중은 16% (2025년 기준) 수준인데, 상승한 벙커유 가격을 GRI/Surcharge 부과를 통해 전가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컨테이너선 수혜는 제한적, 벌크선/유조선이 힘내는 중

실제 전쟁으로 인한 컨테이너선 업황 수혜는 제한적이다. 유럽 노선은 이미 홍해 대신 희망봉 우회를 채택하고 있고, 중동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고 선박들은 인근 노선(남아시아 등)에 투입되면서 공급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위축을 감안하면 물동량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HMM의 경우 중동 항로의 매출 비중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쟁 효과보다는 벌크선과 유조선의 감익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예정이다. HMM은 2025년 말 기준 유조선 17척과 건화물선 22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벌크선 운임지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전쟁 이후 유조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이익 비중이 기존 10%에서 2026년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려운 업황과 든든한 현금

전체적인 컨테이너선 업황은 다운사이클에 진입했지만 HMM은 경쟁 선사 대비 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기에도 수익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날 전망이다. 또한 비축된 현금(1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처를 물색 중인데, VLCC/벌크선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 실적을 보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HMM에 대해서 투자의견 Neutral과 목표주가 21,000원을 유지한다.

2026년 04월 21일 | 기업분석_Issue Comment

알지노믹스 (476830)

간암 효능 서프라이즈, 개발 속도 및 파트너쉽 당길 것

Not Rated

현재주가(4.20) **20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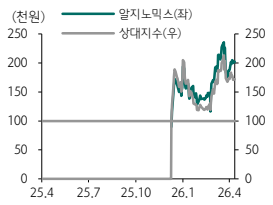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74.85
52주 최고/최저(원)	236,000/90,000
시가총액(십억원)	2,814.6
시가총액비중(%)	0.43
발행주식수(천주)	13,933.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46.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0.3
외국인지분율(%)	3.95
주요주주 지분율(%)	
이성욱 외 6 인	16.60
한국산업은행 외 1 인	7.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0	0	0	0
영업이익	(11)	(19)	(16)	(13)
세전이익	(23)	(32)	(14)	(19)
순이익	(23)	(32)	(14)	(19)
EPS	(3,673)	(3,927)	(1,602)	(2,146)
증감율	N/A	적지	적지	적지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ROE	57.7	50.4	18.2	20.2
BPS	(6,129)	(7,375)	(8,799)	(9,015)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서프라이즈한 AACR 2026 임상1b상 용량 증량 중간 결과 공개

AACR 2026에서 공개된 결과는 주목할 만 하였다. 간동맥화학색전술 불응 또는 시행이 어려운 원발성 간암(이하 HCC) 환자 중 hTERT 양성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RZ001을 Valganciclovir 및 기존 1L 치료제(Atezolizumab +Bevacizumab)과의 병용하여 13명에 투약한 결과(Data Cut off 2026.04.08), mRECIST 기준 ORR 61.5%, RECIST 기준 ORR 38.5%(unconfirmed으로는 46.2%)/ CR 1명/질병통제율인 DCR 92%였다. 현재 임상적 1L로 쓰이는 Atezolizumab +Bevacizumab 병용 임상인 IMbrave150 기준, mRECIST 기준 ORR 33.2%, RECIST 기준 ORR 27.3%/CR 10.2%/DCR 73.6%였다. 부작용 관련 DLT에 도달하지 않았고, Grade3 이상의 이상반응 총 5건 모두 Atezolizumab 또는 Bevacizumab과 관련된 부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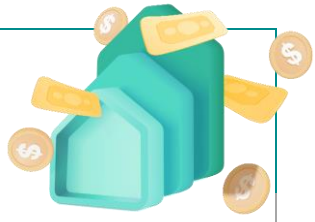
하반기 추가 데이터 확인 기대, 암 확장 가능

다음 추가 또는 최종 결과 확인은 하반기 ESMO 또는 '27년 상반기 메이저 학회로 예상된다. RZ001 간암 임상은 스케줄상 2a까지 3Q28에 종료하는 것이나, 이번 중간 결과에서 기존 1L 대비 우수한 반응률, 압도적인 질병통제률, 및 안전성을 확인 했으므로 순조로운 환자 모집으로 예정된 기간 보다 더 이르게 임상을 마치는 것도 기대해 봄 직하다. 아울러 유전자편집 모달리티에 기반한 약물인 만큼 향후 환자 별로 hTERT 발현량에 따른 반응률을 평가하는 등의 시도로 더 높은 반응률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에 도전할 만 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RZ001은 교모세포종에 대해서도 1/2a상을 진행 중인데, 이 임상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기 초에 용량 증량 시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RZ001은 90% 이상의 암 세포 에 고발현하는 종양 특이적인 hTERT mRNA를 타겟하므로, HCC나 교모세포종 외 다른 고형암에도 확장할 수 있다.

RZ001 외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 증진과 기술이전에 기여할 것

이번 Human data 확보로, RZ001의 기술이전이나 적응증 확장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과 개발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RZ003은 아직 전임상 단계이긴 하나, 회사는 현 단계에서 L/O를 시도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임상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인 RZ004도 호주 P1/2a에 대한 IND 승인은 '24년 하반기에 획득한 상태이므로(자금 조절 및 개발 전략 차원에서 늦춰짐), 임상 진입시 환자 모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성난청치료제 개발을 위한 Lilly와의 협력도 진행 중으로, 이번 성과로 속도가 붙어 전임상에 들어갈 후보물질을 빨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주 미국 이란간 합의가 변수



건설 Weekly | 2026.4.21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6%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연기금 매수, 기관과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삼성E&A와 DL이앤씨 매수, GS건설과 대우건설을 매도했다. 외인은 건설주를 전반적으로 매도했다. 국내 주택주 위주로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6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주 연속 상승(+0.03%), 전세가는 44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59주 연속 상승(+0.07%), 전세가는 60주 연속 상승했다(+0.14%). 서울 매매가는 64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61주 연속 상승(+0.18%)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4주 연속 보합, 기타지방도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37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3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5%, +0.04%).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11%), 인천(+0.02%) 상승, 부산 보합, 대전(-0.01%), 대구(-0.02%), 광주(-0.06%)가 하락했다.
- 이란과 미국의 휴전 합의 종료일은 4월 22일이다. 파키스탄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반면 주말 사이에 미 해군은 오만만에서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휴전 기한이 연장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두 국가 간의 의견 간극이 좁혀지기를 기대해본다.
- 이번 주부터 건설사 실적발표가 시작된다. 4/23 삼성E&A를 시작으로, 4/24 IPARK현대산업개발, 4/28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4/29 삼성물산, 4/30 GS건설과 DL이앤씨의 순서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삼성E&A의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1,970억원)보다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실적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진행 중 현장에 따른 영향, 입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지연 여부, 중동 재건 수혜 여부다. 계열사(삼성전자)에서의 실적 증가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특히 평택 P5의 진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올해 계열사 수주 금액은 연초 예상된 것보다 클 것으로 전망한다.
- 원전 관련해서는 엑스에너지(X-Energy)가 지난 주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IPO 로드쇼를 진행했으며, 공모가를 16~19달러로 제시했다. 약 8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으로, 기업가치 목표는 75억달러다. DL이앤씨는 2023년에 엑스에너지에 2천만달러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한 이력이 있다. 당시 엑스에너지가 스팩상장 추진하며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약 20억달러 수준으로, 현재 투자시점 대비 약 2배 이상의 평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DL이앤씨는 작년 4분기에 보유한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영업외로 수익 인식(평가이익 약 400억원)한 이력이 있다.
- 지난 주 금요일 페르미 아메리카 CEO(Toby Neugebauer)의 사임 소식이 있었다. 토비 뉴지바워는 릭 페리(트럼프 행정부 전 에너지부 장관)와 페르미 아메리나의 공동 설립자로, 과거 에너지 사모펀드인 퀀텀 에너지 파트너스 등의 경력으로 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최근 페르미 아메리카는 확정된 임차인(Tenant)가 없었고, 2025년 회계연도 기준 4.9억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상장 이후의 결과로 사임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대건설은 페르미와 대형원전 4기에 대한 FEED를 진행 중이며, 4월말 FEED를 종료하고 2분기 중 EPC 구도를 어떻게 할지를 구상, 2분기 중 EPC 계약할 계획이다.
-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이란 분쟁과 관련하여 결과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시나리오로 볼 경우, 종전 및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재건 및 이란개발 테마로 삼성E&A, GS건설, DL이앤씨가 수혜다. 단기 휴전으로 유가가 회복될 경우, 자재 가격 및 수급 우려 해소로 국내 주택주가 수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자재 가격, 수급 우려, 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추천종목은 없다.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20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TSMC와 ASML 실적 시사점

AI용 인프라 기업 호실적 기대: 실적 시즌 대응 유효

- 하드웨어 중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어 실적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2분기는 전통적으로 소비자용 IT 하드웨어 기업들의 비수기다. AI용 B2B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B2C 중심 업체들은 보수적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AI 가속기(범용 GPU 및 ASIC), CPU, HBM, 네트워킹, EUV 및 웨이퍼 장비, 첨단 패키징 등의 기업들이 실적 시즌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 지난주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는 병목 상태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와 첨단 제조 장비 기업의 현재 상황을 보여줬다. 시장참여자들은 두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수급 완화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소비자향 제품 판매 약세를 압도하는 AI/HPC 수요, 자본지출 업사이클의 진행, 견조한 선단공정과 첨단 장비 수요, 외형 성장과 함께 좋아지는 수익성 등이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는 일부 존재하지만, 운영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 소비자향 약세보다 AI/HPC 판매 강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TSMC는 소비자 및 가격 민감형 시장 수요가 약해졌다고 설명했지만,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고 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PC와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더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FY 1Q26 플랫폼 매출 기준 HPC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해 비중 61%를 기록했으나, 스마트폰은 11% 감소해 매출 비중 26%에 그쳤다. 견조한 3나노 공정 수요의 배경에 대해서도 AI와 HPC라고 답변했다. ASML도 반도체 업황 성장 전망이 주로 AI 인프라 투자에 의해 견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고객들이 수요 대응을 위해 공격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 자본지출 업사이클은 이미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TSMC는 FY 2026 가이던스 범위(520억 ~ 560억 달러) 상단을 제시했다. 지난 3년 누적 자본지출이 약 1,0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다. 향후 3년 자본지출은 과거 3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매출 증가 속도가 투자 확대 속도를 앞질러 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 만큼, 효율 훼손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ASML은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고객들이 자본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캐파 확장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EUV 장비 생산 확대 계획도 제시했고, 2026년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 선단공정과 첨단 장비 수요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는 최신 노드와 장비 주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TSMC의 매출 대부분은 이미 선단공정 중심 구조다. 3nm는 25%, 5nm는 36%, 7nm는 13%를 차지했다. AI 기반 컴퓨팅 수요가 강해지면서 최신 공정 제품 판매가 양호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3나노 대응을 위한 증설도 진행 중이다. 클린룸, 장비, 신규 팹, 노드 전환 등 일정 전반이 앞당겨지고 있다. ASML도 선단 로직과 메모리 확장으로 첨단 노광장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TSMC의 발표와 일치한다. 장비회사 생산계획이 상향될 정도로 주문이 강하다는 의미다.
- 이번 투자 사이클은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수익성 개선까지 동반하고 있다. TSMC의 FY 1Q26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됐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함께 생산 효율과 가동률 상승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수익성이 높은 선단공정과 AI 및 HPC향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계절성과 소비자 노출이 높은 영역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다음 분기에도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ASML은 FY 2026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지만 매출총이익률 전망은 유지했다. 매출이 더 확대되더라도 수익성 훼손은 제한적이란 의미다. 두 기업의 실적은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적 시즌엔 AI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30,500	3.2%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725	-2.9%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8,800	13.5%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220	55.5%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0.50	6.2%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5.02	20.5%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64.16	36.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12	21.1%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20	216,000	214,500	-0.6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20	1,128,000	1,166,000	3.37%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4/20	162,300	160,900	-0.86%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4/20	257,000	261,000	1.56%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4/20	162,900	164,900	1.23%	•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와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 지속으로 외형 성장 기대 • 2025년 글로벌 건설장비 판매가 3년 간의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
삼아알미늄 (006110.KS)	4/20	53,000	56,300	6.23%	• 2023년 완료된 LIB용 알루미늄박 경쟁력 강화 투자에 이어 추가 투자 지속 • 자동차 제조사들과 배터리 고객사들의 부진에도 ESS 물량 증가로 인한 실적 기대
리가켐바이오 (141080.KQ)	4/20	197,400	200,000	1.32%	•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덕산테코피아 (317330.KQ)	4/20	25,650	25,000	-2.53%	• 미국 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SS 생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 기대 • 자회사 덕산일렉테라의 북미 전해액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LIG아큐버 (073490.KQ)	4/20	47,850	48,100	0.52%	• 5G SA 시대 맞이해 시험장비/스몰셀 매출 크게 증가할 전망 • 통신장비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오름 폭이 적은 상태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와이엠티 (251370.KQ)	4/20	17,350	17,720	2.13%	• AI 시대를 맞아 PCB 산업 고도화 추세. 도금 소재 품질 요구 상승 수혜 가능 • PKG 기판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AI·5G·IoT 확산에 따른 고사양 기판 수요 증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23%	+0.79%p	+67.08%	+23.8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73,000	2.06%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7,950	8.66%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166,000	13.53%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49,300	-3.71%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100,800	9.68%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14,500	28.2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11,000	20.92%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60,900	13.39%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89,500	17.14%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6,800	13.42%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43,000	7.92%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409,500	39.52%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39%	-8.21%p	+36.80%	-6.4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유로권 2월 건설 생산 (E--, -0.1%)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3%, 2월 0.60%) ▪ 미국 2월 기업재고 (E 0.3%, 이전치 -1.0%) ▪ 미국 3월 미결주택매매 (E 0.8%, 이전치 1.8%) ▪ 한국 4월 전년비 수출/입 (E --, 이전치 50.4% /19.7%) ▪ 독일 ZEW 경제성장예상 (E --, 이전치 -8.5%)	▪ 한국 3월 전년비 PPI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일본 3월 전년비 수출/입 (E 11.0%/6.8%, 이전치 4.2%/10.2%)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17.3, 3월 -16.3) ▪ ECB's Lagarde Speaks (London)	▪ 한국 1분기 전년동기대비 GDP (E 2.6%, 이전치 1.60%) ▪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7) ▪ 미국 4월 제조업 PMI (E 52.8, 이전치 52.3) ▪ 미국 4월 서비스업 PMI (E 50, 이전치 49.8) ▪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E --, 이전치 11) ▪ 일본 4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6) ▪ 일본 4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3.4) ▪ 유로권 4월 제조업 PMI (E 50.5, 이전치 51.6)0 ▪ 유로권 4월 서비스업 PMI (E 49.5, 이전치 50.2)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1.8%, 이전치 1.60%) ▪ 일본 3월 전년비 CPI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48.3, 이전치 47.6)	
4.26	4.27	4.28	4.29	4.30	5.1	5.2
	▪	▪ 일본 3월 실업률 (E --, 2월 2.60%) ▪ 미국 4월 CB 소비자기대지수 (E 88.8, 3월 91.8)	▪	▪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